

멕시코 수출액,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5% 증가

멕시코의 2023년 1월 수출액이 2022년 같은 달에 비해 25.6% 증가했다고 통계청 INEGI가 발표했다.

올해 첫 달 425억9000만 달러 규모의 멕시코 제품이 해외로 수출됐는데 연간 수출액 증가율은 2022년 2월 이후 가장 높았다.

INEGI(멕시코 통계청)는 1월 비석유 수출로 인한 수익이 전체의 93.6%인 398억8000만달러인 반면 석유 수출은 27억1000만달러 규모라고 밝혔다.

전자의 범주 내에서 공산품은 수출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연간 기준으로 28.3% 증가한 373억 2천만 달러로, 비석유 총액의 93% 이상을 차지했다. 자동차 수출은 136억



달러로 2022년 1월 대비 가치가 64.9% 급증했고, 기타 공산품은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한 237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주류를 포함한 농산물 수출은 9.8% 증가한 19억 달러, 광업 수출은 9.6% 증가한 6억5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석유 수출은 8.9% 증가한 27억 달러를 기록했

다. 전체 수출액이 12월에 비해 6% 조금 넘게 증가했는데 올해들어 세계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선방했다는 평가다. 세계은행은 2023년 경제성장률을 멕시코 0.9%, 미국 0.5%, 전 세계 1.7%로 전망하고 있다.

멕시코에 대한 수입도 1월에 467억 1,000만 달러로 16.3% 증

가했다. 결과적으로 멕시코는 올해 첫 달에 41억 2천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남겼다. 이는 2022년 1월 기록한 62억8000만 달러 적자보다 34% 낮은 수치다.

INEGI는 1월 비석유 수입이 411억6000만 달러인 반면 석유 수입(정제 연료)은 총 55억5000만 달러라고 밝혔다. 전자는 2022년 1월에 비해 15.7% 증가한 반면 후자는 20.6% 증가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의 연료 수입 의존을 끝내고 2023년 자급제 목표일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타바스코 해안에 새로 건설된 올메카 정유소가 올해 중반까지 풀가동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 정부의 희망대로 멕시코가 2023년 말까지 연료 수입을 중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세 보이는 페소화, 2017년 이후 달러 대비 최고 수준

멕시코 페소화가 오늘 기준 지난 5년 대비 미국 달러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가치를 나타냈다.

Mexico 중앙은행 (Banxico) 데이터에 따르면 북미 시장이 문을 닫았을 때 1달러가 17.97페소까지 내려가면서 2017년 9월 이후 멕시코 통화에 대한 가장 강한 수준을 보여줬다.

금요일 하루에만 달러에 대해 0.86%, 이번 주 들어 2.33%까지 가치가 상승했는데 올해 미국 통화에 비해 7.88% 절상되면서 2023년 세계에서 세계에

서 가장 잘 버티어온 주요 통화 가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달러는 올해 초보다 1.54 페소를 더 적게 교환되는 셈이다.

이같은 달러화 대비 페소화 강세를 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달러 약화, 송금의 강력한 유입 및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Tesla를 포함하여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Banco Base의 경제 분석 책임자 인 Gabriela Siller에 따르면 중국발 긍정적인 경제지표가 위험자산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켜 미 달러화를 약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Black Wallstreet Capital의 경제 분석 담당 이사는 수출 및 송금의 증가와 관광 지출의 증가로 인해 페소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져 통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페소를 돕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멕시코의 높은 금리다.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은 지난달 높은 인플레이션과 계속 싸우면서 중앙은행이 고물가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기준

금리를 사상 최고치인 11%로 인상했다. Rodríguez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이 이곳 멕시코에서 투자 기회를 찾게 만든다"고 말했다.

Victoria Rodriguez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는 "핵심 인플레이션인 2월 상반기 8.38%가 여전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다음 통화정책 회의는 3월 30일에 있다.

2023 법정 공휴일	DÍAS FESTIVOS OFICIALES (Días de descanso obligatorios)
1월 01일 신년	5월 10일 어머니 날*
2월 06일 헌법의 날	9월 16일 독립기념일
3월 20일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일	11월 2일 망자의 날*
4월 06일~07일 부활절*	11월 20일 혁명기념일
5월 1일 노동절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축일*
5월 5일 뿌에블라 전승기념일*	12월 25일 성탄절
(*비공식: 일반적으로 휴무이나 법정 공휴일은 아님)	

환율 정보 (오전10:00분 현재 - Banamex)			
멕시코 페소 / USD		한국 원화 / USD	
살 때	17.77	살 때	1,346
팔 때	18.79	팔 때	1,300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안내	
번호판	끝자리 검사 기간
1, 2번	04-05월 / 10-11월
3, 4번	03-04월 / 09-10월
5, 6번	01-02월 / 07-08월
7, 8번	02-03월 / 08-09월
9, 0번	05-06월 / 11-12월

납치 · 피살된 미국인들 마약밀매 전과...당국, 연관성 조사

납치 · 피살된 미국인들 마약밀매 전과...멕시코당국, 연관성 조사. 美일각, 갱단소탕에 '軍 파견' 주장...멕시코 대통령 "주권에 대한 위협"

멕시코 북부 도시에서 괴한에 납치됐다가 숨지거나 다친 채 발견된 미국인들은 마약 밀매와 소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멕시코 일간지 엘우니베르살과 레포르마,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주 마타모로스에서 무장 괴한에 의해 납치됐다가 나흘 뒤 숨지거나 다친 채 발견된 미국인 4명 가운데 3명에게 마약 소지 · 제조 · 유통 관련 범행 기록이 있었다.

특히 사망한 2명은 마약을 밀매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해로 조사됐다. 강도나 무기 소지 등 범행 사실도 있었다.

생존자 2명 중 1명 역시 마약 제조 및 유통, 절도 등 범죄로 체포된 적 있다고 멕시코 언론들은 보도했다. 로이터는 다른 1명도 마약 관련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들 4명은 노스캐롤라이나 변호관을 단 하얀색 미니밴을



타고 국경을 넘자마자 마타모로스에서 총격을 받고 피랍됐다. 이 중 2명은 숨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의 친척은 미국 언론에 "(4명 중 1명이) 북부에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마타모로스 병원에 가던 중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멕시코 당국은 이번 사건과, 피해자들의 과거 범행 간 연관성 여부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이번 범행을 저지른 유력한 용의자 집단으로 알려진 걸프 카르텔이 마타모로스 일대에서 마약과 관련한 '영역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르빙 바리오스 타마울리파스 법무부 장관은 "(용의자들이) 4명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른 수사선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각에서는 멕시코 마약 갱단 엄단을 위해 군대 동원을 요구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댄 크렌쇼(공화 · 텍사스) 하원의원은 "멕시코 대통령은 듣고 있으나"라면서 갱단 소탕을 위한 군사력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린지 그레이엄(공화 ·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CNN 인터뷰에서 미국 테러리스트 명단에 멕시코 카르텔을 포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자국군 파견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미국 군대가 우리 영토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2022년 멕시코 소비지출 6.5% 증가

멕시코 통계청 INEGI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완고하게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소비자 지출은 2022년에 연간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던 불경기에서 완전한 소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 데이터는 국내 및 수입 소비재와 서비스에 대한 가계 지출을 측정하는 INEGI의 월별 개인 소비 지표(IMCPM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

계산 방법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다. 증가는 주로 수입에 대한 지출에 의한 것으로, 2021년 대비 13.5% 증가했다. 국민제품 소비가 전체적으로 5.6% 증가한 것은 8.8% 증가한 서비스 부문의 영향이 컸다. 국산품 구매는 2.4% 증가하는 등 더 미묘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수치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에 11%가 붕괴된 후 지속적인 회복을 보여준다. 소비자 지출은 2021년에 8.2% 증가했다.



Monterrey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산업용 대형창고 임대 및 판매

몬테레이와 살티요에 근접한 위치 소재
안전한 관리가 가능한 최신 시설의 대형창고
물류 창고에 대한 고민이 해결 됩니다.

최소 4,000 m² (1,200평)
최대 50,000 m² (15,000평)



사무실: 811-165-6005 / 812-584-9465

이메일: digainmuebles@gmail.com

홈페이지: www.diga-inmueble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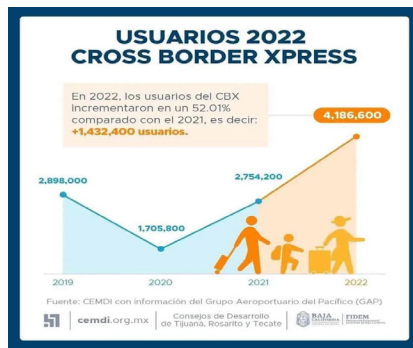
작년 멕시코-미국 넘어가는 보행교 CBX 50% 이상 증가

티후아나 공항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터미널을 연결하는 국경 횡단을 이용한 항공사 승객이 지난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후아나 공항을 운영하는 태평양 공항 그룹(GAP)은 2022년 419만 명이 횡단 보도 Xpress(CBX) 보행자 다리를 이용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2021년 CBX를 이용한 275만명보다 52%, 2019년 대비 44% 높은 수치다.

2015년 개통된 이 보행교는 길이가 약 119m(390피트)로 티후아나 공항을 드나드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티후아나 공항에서 샌디에이고((San Diego)) 방면으로 가는 "정규 시즌" 편도 티켓은 26.95달러이고 반대 방향으로는 23.95달러이다.

RaMI Revuelta GAP 총괄 이사는 "지난해 티후아나 공항의 여객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CBX 개통



덕분" 이라고 분석했는데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1230만 명으로 전년의 약 970만 명에서 증가했다. 2015년 말 CBX가 문을 열었을 때 공항은 연간 약 480만 명의 승객을 처리하고 있었다.

한편, 바하 캘리포니아 정부는 티후아나의 주민들을 위해 Tijuana-San Diego 국경 통과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미국 당국에 제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트롤리 경전철 티켓을 가지고 있

는 티후아나 주민들은 그들만의 전용 횡단보도를 갖게 되어, 현재보다 훨씬 더 빨리 미국 국경 도시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샌디에이고 유니온 트리뷴(Union-Tribune)의 보도에 따르면, 바하 캘리포니아 경제혁신부 장관 커트 호놀드(Kurt Honold)는 최근 샌디에이고를 방문한 가운데 "주 정부가 이 아이디어를 미국 당국에 공식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티후아나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미국 국경을 넘어가 가정부나 건축 현장 등 이른바 3D 업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경을 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국경 검문소에서 허비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즉, 샌디에이고(San Diego)로 건너가기 위해 두 세 시간을 기다리는 대신 CBX에서 시작하여 보

행자 다리로 연결되는 전용 횡단 보도나 트롤리 전철로 직행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빨리 미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일의 능률면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샌디에이고의 경전철 시스템은 멕시코 쪽인 San Ysidro 입구와 시내를 연결하는 노선을 가지고 있다. 샌디에이고 메트로폴리탄 트랜짓 시스템(MTS)의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13,000명의 승객이 San Ysidro에서 트롤리를 탄다.

즉, 하루에 13,000여명의 근로자가 미국 일터로 출근하는 것이다. 트롤리 사용자들을 위한 전용 국경 횡단은 국경을 넘는 자동차의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따라서 오염을 줄일 수 있어 미국측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양국 국경 관계자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미비점이 개선된다면 관철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inanzas - Fiscal - Legal Corporativo



홈페이지: www.fratelliconsultores.mx

Monterrey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금융, 세금, 기업 법률 자문 서비스 및 컨설턴트

당사만의 특별한 고부가가치의 정보제공

- 폭넓은 경험과 경력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들이 설립한 세무 및 법률 컨설턴트 업체
- 멕시코 정부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는 비즈니스 솔루션 제공
- 각 기업체마다 상이한 특정 요구 사항에 최적화된 서비스 정보 제공
- 미국, 멕시코 국경 물류의 핵심 정보와 지역 프로젝트에 최상의 서비스 제공
- 시간엄수 / 빠른 업무처리 / 철저한 비밀보장으로 신뢰 구축

주소: Eucalipto No. 208 Poniente, Colonia del Prado, Monterrey, Nuevo León, México, C.P. 64410.

사무실: 81 252-78218



+ 52 811 311 3084

이메일: atv@fratelliconsultores.mx

체포된 Ovidio Guzman, "나는 티 Chapo의 아들 아니다" 부정



지난 1월 체포된 시날로아 카르텔의 지도자로 알려진 오비디오 구스만이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자신은 마약왕 '엘차포'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카르텔의 "로스 차피토스(Los Chapitos)" 갱단의 우두머리로 알려진 오비디오 구스만은 법정 청문회에서 그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았을 때 이같이 놀라운 주장을 했다.

구스만은 마약 밀매, 총기 소지, 돈세탁 혐의로 미국에서 수배 중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종신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32세의 용의자는 멕시코 주 알티플라노 최고 보안 교도소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청문회에 출석

하면서 자신의 체포가 신원 오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그들이 믿는, 미국이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구스만의 변호사인 알베르토 디아스 멘디에타도 판사에게 그의 의뢰인이 2019년 미국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구스만 로에라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다.

디아스는 또 미국이 멕시코 외교부에 제출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뢰인의 인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멕시코 검찰은 그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포함된 신체적 묘사와 일치한다고 반박하면서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로켈리오 디아스 비야레알 판사는 구스만이 범죄인 인도 요청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비디오 구스만은 2019년 쿨리야칸에서 처음 체포되었으나 시날로아 카르텔 조직원들의 폭력적인 대응과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대통령의 지시

올해 최대 4천만 명 관광객 멕시코 방문할 것으로 예상

멕시코의 매력적인 해변, 장엄한 고고학 유적지 및 아름다운 식민지 도시는 올해 거의 4천만 명의 국제 관광객이 멕시코로 모여들면서 매우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Miguel Torruco 관광부 장관은 "2023년 올해에만 3,94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멕시코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국제 관광객 수보다 2.7% 많으며 코로나 이전해인 2019년 기록에 비하면 12.6% 모자란 수준이다.

Torruco 장관은 예상되는 3,94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멕시코 경제에 미화 311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으로 멕시코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 관광객 1인당 약

790달러에 해당하는 이 수치는 지난해 수입보다 11.3%, 2019년 국제 관광객 지출보다 26.8% 증가한 것으로 관광산업이 2023년 멕시코 전체 GDP의 약 8.6%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예상과 다르지 않게 지난달 1월에만 국제선 항공편으로 멕시코를 오가는 승객이 499만명으로 2022년 같은 달에 비해 3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선 승객도 31.3% 증가한 498만 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Aeromexico와 Volaris는 국제선 승객 수 기준으로 멕시코의 상위 2개 항공사였으며, Volaris와 Viva Aerobus는 국내선 승객 기준으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로 곧바로 석방된 바 있다. 결국, 그를 풀어준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멕시코 국방부는 다시 체포에 들어가 1월 5일 두 번째 체포에 성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충돌로 10

명의 군인과 19명의 범죄자들이 사망하고 며칠간 도시가 마비되는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현재,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는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Guadalajara-Puerto Vallarta 까지 새로운 고속도로 구간 개통

과달라하라(Guadalajara)와 뿌에르토 바야르타(Puerto Vallarta)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두 도시 사이의 운전 시간이 2시간 이상 단축되면서 한층 더 가까워졌다.

이번 고속도로 개통은 2022년 12월 Las Varas와 관광의 중요한 도로인 분기점 692를 연결하는 23.6km의 Capomo-La Florida 노선 운행을 시작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전체 도로가 완공되면 두 도시 사이의 운전 시간은 4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으로 크게 단축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멕시코 정보통신교통부 장관(SICT)은 성명을 통해 La Florida와 La Cruz de Huanacastle 교차로 사이의 30.8km 구간의 고속도로 개통을 공식 발표했다. 건설에는 49

억 페소 (2억 7,220만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9개 지역 사회에 혜택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개통된 고속도로는 전체 3단계 구간 중 두 번째 단계로 고속도로 총 54.4km에 대해서 차량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3차 구간이 완공되면 도로의 길이는 총 86.5km에 이르게 되는데 전체 구간에는 교량 45개, 분기점 7개, 터널 3개, 고가교 3개가 포함되어 있다.

SICT(멕시코 정보 통신부)에

따르면 매일 약 6,000대의 차량이 매일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고속도로는 Riviera Nayarit의 주요 관광지(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장소 중 하나)를 좀 더 쉽게 방문하는데 핵심 도로가 될 전망이다. 멕시코 제2의 도시인 Guadalajara와 Tepic시와 연결은 물론, 푸에르토 바야르타 공항과 나야리트의 테픽 공항 등 이 지역의 두 개 국제 공항과도 연결이 되면서 관광객 유입체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現정부 역점사업 마야열차, 12월 1일부터 운행 시작한다

유카탄 반도를 운행할 여객 및 화물 철도 노선인 마야열차(Maya Tren)가 올해 12월 1일부터 공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군이 통제하는 철도 회사인 트렌 마야 S.A. de C.V.가 발표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마야열차'가 올해 말에 드디어 공식 개통식을 갖고 운행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책임을 맡고 있는 오스카 로자노 아길라(Oscar Lozano Aguila) 사령관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아침 기자회견에서 1,554km 철도 루프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마야열차'는 현 정부가 핵심적인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온 대표적 건설 공사다. 최고의 철도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될 열차는 안전을 가장 중요시 하면서 각종 돌발 상황을 가정하여 철저하게 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령, 통나무나 바위에 의해 선로에 방해가 있을 때 통제 센터에서 감지하고 열차가 자동으로 멈추게 시스템 등이다. 승객을 태운 열차는 시속 160킬로미터. 화물을 적재했을 경우에는 시속 109킬로미터로 운행하게 된다.

Sedena(멕시코 국방부)가 운영하는 마야 트레인 회사인 Maya Tren S.A. de C.V.의 오스카 로자



노 아길라(Oscar Lozano Aguila) 사장은 "페멕스가 생산한 연료와 연방 전기 위원회가 생산한 전기로 열차를 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열차 시스템이 하이브리드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노선의 일부는 전기로 운행되고 일부는 디젤 연료로 운행하게 된다. 디젤은 15ppm 이하의 유황을 함유한 환경 친화적인 초저황 디젤(ULSD)을 사용하게 된다.

전기는 연방전기위원회(CFE)가 전기 시스템을 제공하지만 연료는 Texas주 Deer Park에 있는 페멕스 정유소와 Veracruz주 Coatzacoalcas에 있는 Pajaritos 정유소에서 공급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료보다 오염농도가 훨씬 낮은게 특징이다. 열차는, Tabasco, Chiapas, Campeche, Yucatan, Quintana



Roo 등 5개주 34개 역을 통과하게 되며 모두 42편의 열차가 운행하게 된다.

한편, 선로 공사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환경 보존과 관련,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INAH)의 디에고 프리토 에르난데스(Diego Prieto Hernandez) 소장은 프로젝트의 7개 섹션 중 5개 섹션에서 이미 건설 전 고고학적 구조 과정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45,000개 이상의 구조물이 등록되고 보존되었다"고 말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발견된 유물 중에는 Ek Balam의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묶인 죄수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여성 통치자의 조각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철도운행으로 이 지역의 정글, 지하 동굴, 고고학적 유적지에 잠재적으로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환경 운동가

들은 "이 프로젝트가 삼림 벌채를 유발하고 지역 원주민 공동체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야철도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서 끈질기게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마야 기차는 법적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법원의 최종 판결을 근거로 하여 결국 완공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이기도 하지만 토착민들이나 지역 강단들의 물리적 공격도 예상되는 만큼, 보안에도 軍은 특별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루이스 크레스енси오 산도발 곤살레스(Luis Cresencio Sandoval) 국방장관은 국방부(Sedena)가 주방위군 4,931명과 드론 28대, 헬기 5대, 공군기지 3대를 배치해 '마야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점은 2013년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행정부가 구입한 4대의 AgustaWestland AW109 군사용 헬리콥터가 마야 트레인 노선에 투입되어 감시하게 되는데 이 헬리콥터는 현 정부가 2019년에 민간에 판매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4대의 헬리콥터 중 한 대다.

6면에서 계속..

국제 이주 화물

숙련된 인원과 장비로 직접 서비스 합니다.

- 30년 경력
- 신속한 견적
- 양질의 풍부한 포장재료 사용 (OUT BOUND)
- 다양한 사양의 벤 & 박스트럭 보유 (1톤-25톤)

 **PanTrans HHGDS**

홍승표 전무: sphong@pantrans.com.mx
이남수 이사: leens@pantrans.com.mx
Web: www.pantrans.com.mx
YouTube: PanTrans México
Tel.: (52 -55) 5566 8955, 5566 6456,



몬테레이 / 시티

비자문제,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개인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유형의 비자업무 취급

- | | |
|---------------------------|------------------|
| ◆취업비자 \$10,000 | ◆비자연장 \$5,000 |
| ◆임시 및 영주권자 신분 변경 \$6,000 | |
| ◆직장, 주소, 결혼 여부 변경 \$4,000 | ◆국적변경 \$4,000 |
| ◆일 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 \$6,000 | |
| ◆고용주 등록 증명서 발급 \$6,000 | ◆이민서류 교환 \$4,000 |

RYF CONSULTING, S.A. de C.V.

주소: Aguilas # 200 A Colonia, Las Golondrinas Apodaca N.L.
전화: Tel(oficina) (81) 83324197, Cel. 8119445318 Lic.
메일: rsalas@ryfconsulting.mx / ysalas@ryfconsulting.mx

시티 시장, 시티-케레타로 고속 열차 추진 의지 내비쳐 주목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전 대통령 정부가 2012-18년 추진했다가 취소된 멕시코시티-케레타로 철도 건설에 대해 이를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케레타로에서 열린 1917년 멕시코 헌법 제정 기념일 축하 행사에서 멕시코시티 시장이 밝혀 주목 받고 있다.

차기 대선에서 집권 모레나당의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인 Claudia Sheinbaum 현 멕시코시티 시장이 이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치적을 쌓으려는 것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멕시코시티에서 북서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진 케레타로와 새로운 철도 연결이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가 있지만, 시장의 건설에 대한 의지 표명이 과연 실현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페냐 니에토 정부 당시 추진하면서 공식 입찰을 실시, 중국 주도의 컨소시엄 37억 5천만 달러에 이 공사를 낙찰 받았으나 야권의 반대와 예산 확보 문제, 중국 기업에



대한 불신 등으로 2014년 말 취소된 바 있다.

이듬해 다시 이를 추진했지만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면서 무기한 연기된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케레타로 시에서 시티 시장과 Mauricio Kuri 케레타로 주지사가 만나 시티와 지역 도시 간 철도 연결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셰인바움 시장은 "이 프로젝트가 실행 가능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건설되는 것을 보고 싶으며, 2024년 말에 취임할 차기 연방 정부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자신의 대권 행보와 연결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

았다. 즉,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최 우선 순위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현재, 시티 시장은 내년 대선에서 집권 모레나당 대선 후보 중 유력한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그의 최대 경쟁자는 외무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르다.

한편, 중국철도건설공사가 이끄는 컨소시엄이 건설하기로 한 철도는 고속 여객 열차가 운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셰인바움 시장은 멕시코시티-케레타로 사이의 새로운 철도는 여객은 물론, 화물칸도 연결해서 동시에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 추진이 된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이유로 멕시코시티와 케레타로간 고속도로가 포화 상태로 화물 운송에 어려움이 많은데 열차가 일정 부분 화물을 운송한다면 고속도로 통행이 좀 더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역시 예산인데 이와 관련, 결정권자인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달 국토 교통부가 철도 사업이 부활할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자신의 임기 중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실제 공사가 착공 되기까지는 결정이 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현재 연방 정부는 타바스코, 캄페체, 유카탄, 키타나 루, 치아파스 주의 도시와 마을을 연결하는 '마야 철도' 건설에 집중하고 있는데 현 상태로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기에는 예산을 포함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광, 통근, 화물 열차가 운행될 예정인 이 철도는 2023년 말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멕시코 정부, 할리우드 영화사 6곳과 계약 체결

멕시코 연방 정부가 멕시코의 영화 산업에 활성화를 위해 6개의 주요 할리우드 영화 스튜디오와 계약을 맺었다.

외무부 (SRE)는 월요일 주 및 지방 자치 단체와 함께 Disney, Netflix, Paramount, Sony, Universal, Warner Bros 등과 계약 하면서 영화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멕시코에서 더 많은 영화와 시리즈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제임스 카메론의 "타이타닉 (Titanic)"과 같은 영화, 바즈 루르 만 (Baz Luhrman)의 "로미오 + 줄리엣 (Romeo + Juliet)", 샘 멘데스 (Sam Mendes)의 "스펙터



(Spectre)"가 부분적으로 멕시코에서 촬영된 바 있다.

외무부 장관은 "이번 계약으로 멕시코로 유입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투자는 백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멕시코에서 더 많은 영화 제작으로 더

5면에 이어..
한편, 마야열차를 통합 운영하는 Maya Tren S.A. de C.V 라는 회사는 Sedena(국방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338명의 직원 중 138명이 군인으로 알려졌다. 사업경비의 운용은 전적으로 국방부 인력이 책임지고 있는데 이유는 부정이나 횡령을 방지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마야 열차의 개통 예정일은 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 5주

년이 되는 날이다. 열차가 지나가게 되는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과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이득'이라는 큰 선물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바로 정치적 이익이 현 정부가 예상하고 추진한 '마야 열차' 추진의 배경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임기말에 가까운 대통령의 취임일에 개통일을 맞춘것을 두고 말이 많은 이유다.

코에서 더 많은 영화 제작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함께 멕시코의 창조적 힘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는 뛰어난 영화 제작자와 감독도 많은데 Three Amigos" Alfonso

Cuarón, Alejandro Gonzalez Inarritu 및 Guillermo del Toro를 포함한 몇몇 멕시코 감독은 멕시코와 외국에서 제작한 영화가 크게 성공한 적도 여러번 있을 정도로 시청각 산업에 대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onterrey의 Oxxo, 중남미 최초 무인 점포 열었다

멕시코 대표적인 소매 체인점인 Oxxo가 새로운 시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던 모습도 이번에 도입한 '무인점포' 시스템이 자리를 잡을 경우 점차 사라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Oxxo가 Monterrey에서 무인 점포를 중남미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에 들어가면서 성공여부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익숙했던 계산대 앞에서 결재를 하던 것이 계산대가 없어지고 등록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시스템으로 손님은 매장에 들어와 제품을 선택하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

디지털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객은 무료 모바일 앱인 "Oxxo Smart Tec Grab & Go"를 휴대폰에 다운로드하고 데이터를 등록하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대한 계정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그 후 사용자가 Oxxo Grab & Go에 들어갈 때 스캔할 QR 코드가 생성된다.

거기에서 고객은 평소와 같이 구매할 품목을 선반이나 냉장고에서 꺼낸 다음 출구로 향하면 설치



되어 있는 카메라를 포함한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품을 합산하고 고객에게 휴대폰으로 영수증을 보내게 된다. 바코드를 스캔할 필요가 없다.

현재는 누에보 레온에 있는 Tecnológico de Monterrey의 메인 캠퍼스에만 설치되어 운영을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문제점 개선 등이 이루어진 다음에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Oxxo의 혁신 및 전략 기획 이사인 Ricardo Leyva는 "Grab & Go를 통해 대학교, 광장 및 공원, 아파트 단지, 병원, 대규모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점포 개선을 목표

로 하고 있다"고 말해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 했다.

지난 2월 10일에 문을 연 몬테레이 매장은 올해 초 몬테레이에 본사를 둔 소매 거대 기업인 멕시코 회사 Femsa가 출시한 'Oxxo Smart'라는 새로운 무인점포 운영 시스템의 일부다.

Femsa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독립 Coca-Cola 음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Oxxo 체인을 운영중이다.

이 회사는 멕시코에서 연간 800~1,000개의 Oxxo 매장을 신규로 오픈하고 있을 정도로 확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현재 속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멕시코 전국 대부분 지역이 Oxxo체인이 거

의 독점하다시피 세력을 확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Femsa의 CFO인 Eugenio Garza는 "우리가 매장을 계속 확장함에 따라 투자의 대부분은 편의 부문에 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전국 체인화에 집중하고 있다.

무인 점포 시도 이전인 2년 전부터 Oxxo는 셀프 계산대(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지불)를 마련하고 수도, 전화 및 케이블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 매장을 테스트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한 단계 더 진화한 무인 점포로 확대시키며 혁신에 나선 것이다.

"얼음 한 봉지를 사고 싶을 때 8명의 다른 사람들 뒤에서 기다리는 것이 불편했는데 이제 그런일도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될 것 같다"는 한 고객의 표현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옥소의 '무인점포'에 대한 기대를 읽을 수 있다.

한편, 옥소 모회사인 Femsa는 멕시코 폐쇄화 강제로 인한 외환 손실로 2022년 동기 대비 1/4분기 수익이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안전한 도시로 알려진 케레타로, 집 평균 가격은 200만 페소

케로타로(Querétaro)는 멕시코 시티와 3시간 거리, 인구는 약 800,000명으로 비교적 안전한 도시로 알려지면서 최근들어 인구 유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도시다.

이에 신축되는 주택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데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차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16개 주요 도시에 포함된 걸 보면 주택 가격은 지방 도시 평균치를 감안하면 그리 높은편은 아니다.

멕시코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153만 페소다. Federal Mortgage

Society Index(연방 주택담보대출협회)에 따르면 신축 주택의 최저 가격은 998,000페소였으며 집 평균 가격은 200만 페소다.

반면, Querétaro는 멕시코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5개 도시 중 하나인데 자동차, 항공산업이 발달한 도시답게 직장인들의 월급 수준도 높은 편이다.

케레타로주 전체의 주택 가격은 중간 지역에 위치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8.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8.9%보다 낮다. 대도시권별로는 2022년

기준 멕시코시티가 7.2%였으며 제2의 도시 과달라하라 9.3%, 몬테레이 9.1%, 푸에블라-틀락스칼라 8.2%, 톨루카 6.3%, 티후아나 2.8%, 레온 7.8%였다.

관광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Quintana Roo주가 14.6%로 인상폭이 가장 높았으며 Baja California Sur는 14.2%, Nayarit 13.6%, Sinaloa 13.1%, Durango는 5.1%, 멕시코 주 6.1%, Oaxaca 6.7%, Tabasco, Zacatecas가 7%, Tlaxcala가 7.1%로 뒤를 이었다.

거래되는 주택중에서 60%는 중

고 주택으로 가격이 8.1% 상승했으며 나머지 40%는 새주택으로 가치가 9.9% 상승해 신축 주택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한편, 케레타로는 외부에서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2016년 805,327명, 2017년 823,218명, 2018년 841,378, 2019년 859,168명, 2020년 876,062 까지 늘어났다가 2021년 들어 794,789명으로 약 8만 여명이 줄어들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유입됐던 인구가 빠져 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eromexico 조종사 파업으로 항공기 무더기 결항

아에로멕시코(Aeromexico) 항공사가 조종사들의 파업으로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됐다. 이유를 두고는 서로 '네 탓'으로 주장하고 있다.

조종사들의 파업으로 최소 53편의 아에로멕시코 항공편이 일요일과 월요일에 취소되었고 315편이 지연되었다.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항공기가 취소와 지연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 국적 항공사인 Aeromexico측은 성명을 통해 일부 승객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상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멕시코 항공 조종사 협회의 노조를 이끌고 있는 현 지도부는 "조종사들에게 교대 근무를 배정이 잘못되었으



며 계약에 따른 행동일 뿐"이라며 "정해진 시간과 규정 외에는 근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사태도 "운영 구조 조정의 문제 때문"이라며 취소와 지연의 책임을 아에로멕시코 경영진에 돌렸다.

특히, "우리는 단체 노동 협약의 규정과 조항을 엄격하게 존중하고 있으며 승무원들에게 최대 14~15시간의 비행일정을 수용하거나 휴식 시간도 제대로 보장하



지 않는 잘못된 경영진이 문제"라고 강변했다.

아에로멕시코와 ASPA(멕시코 항공 조종사 협회) 사이의 갈등은 몇 달 동안 계속되어 왔다.

코로나 확산으로 승객이 감소하자 2021년 초 4년간 5%에서 15%의 감봉을 수용한 아에로멕시코 조종사들은 항공사가 무료 항공편과 같은 모든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Aeromexico와 그 자회사인 Aeromexico

Connect에 소속된 약 2,800명의 조종사로는 모든 노선을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아에로멕시코 객실 승무원의 호텔 및 교통비 지원을 15% 줄인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즉,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거의 모든 노선이 정상화 되면서 승무원들에게 제공되던 임금이나 복지 혜택을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리라는 의미가 강하다. 결국 돈 더 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노조측은 "현재의 분쟁은 조종사들이 취한 임금 삭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회사측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물밑 대화가 오가고 있으며 양측이 빠른 협상으로 타결을 희망하고 있어 조만간 결론이 나면서 정상화가 될 전망이다.

"부당 해고 당했다"며 소송 제기한 前직원 무려\$750,000 폐소 받아냈다

멕시코 대기업으로 가전제품과 금융 서비스업으로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Grupo Elektra社가 종업원 한 명을 잘못 해고 시켰다가 호되게 당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전파되면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1950년에 설립되었으며 멕시코 시티에 본사를 이 회사는 멕시코, 미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에 1,143개의 매장이 있는 대형 회사다.

멕시코에서 판매되는 텔레비전 4대 중 약 1대, 냉장고 5대 중 1대, 오토바이 10대 중 7대를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일하는 자국민들이 멕시코로 송금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

대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Grupo Elektra는 그동안 서민들이 신용으로 구매한 제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인정사정 없이 청구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자주 발생하던 것이 구매한 제품을 반품하려면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며 24시간 후에는 반품을

받아들이지 않아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다.

이처럼 철저한 기업 운영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회사가 이번에는 거꾸로 종업원이 제기한 소송에 패소 하면서 거액을 물어주게 된 것이다.

주인공은 Cancun 시의 Tulum에 있는 Elektra매장에서 6년 동안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 해고에 대한 법이 정한 만큼 보상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거절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약 4년 간의 끈질긴 소송 끝에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돈을 받아내려 했지만 이때도 회사 측이 지불을 거절하면서 결국 법원의 집행관이 참여한 가운데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가구와 TV, 기타 다른 전

자 제품을 강제로 집행하게 된 것이다. 최종 승소 판결은 올해 1월에 나왔다.

피해 보상을 포함 지연 이자 등 총액이 무려 \$750,000(약 4천5백만원) 폐소에 이르는 금액인데 실제 제품으로 대체해간 물건 값은 이를 상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제품 매장의 관리직이 일반적으로 약 20,000페소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나온 배상액은 비록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예상 외의 금액이 산정되어 법원의 판단 기준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종업원을 함부로 해고 시키면 이처럼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경우다.

"美, 간섭하는 나쁜 습관"...미국 맹비난 멕시코 대통령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자국 선거관리위원회 축소안에 비판하는 취지의 미국 측 논평에 대해 "그들은 항상 다른 일에 간섭하려는 나쁜 습관이 있다"고 비난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나온 미국 국무부의 '선거위 축소 반대 시위' 지지 논평과 관련, "그들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고,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주말 멕시코 전역에서는 야당과 보수시민단체 등이 대거 참여한 선거위 개편안 반대 시위가 진행됐다. 이들은 선거위 기



능과 예산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정부·여당을 '독재 포퓰리즘'이라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이와 관련,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 대변인은 전날 "민주적 절차

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독립적인 선거기관을 지지한다"며 멕시코 내 반대 시위를 옹호하는 논평을 냈다.

2006·2012년 대선 낙선 당시 부정행위 의혹 등을 제기했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18년 취임 이후 "선거위의 방만한 운영과 비중립적 태도"를 문제 삼으며 대대적인 '수술 필요성'을 공공연히 주장한 바 있다.

"나는 미국보다 멕시코에 더 많은 민주주의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극심한 정치·사회적 혼란을 겪는 페루를 언급하면서 "주페루 미국 대사와 함께 그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살피는 게 좋을 것"이라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그는 앞서 시위를 조직한 자국 야권에 대해서도 조롱에 가까운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한 바 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시위에 참여한 야당 관계자들을 '화이트칼라 도둑'이라고 힐난하며 "그들은 선거 사기의 옹호자이자, 멕시코에 마약이 넘쳐나게 한 부패한 일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이 건드리지 말라고 외치고 싶었던 건 (선거위가 아니라) 부정부패, 특권, 마약"이라고 성토했다.

테슬라, 멕시코 북부 美 접경에 새 공장..."물 부족 타개할 것"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멕시코 내 새 공장 부지가 혼전 끝에 결국 미국 접경인 북부 지역으로 결정됐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 지역에 테슬라 공장이 설립될 것"이라며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밤과 전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통화를 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네, 그들은 멕시코에 투자한다"고 확인하며 그간 혼전을 거듭하던 공장입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멕시코의 산업 수도'라고 불리는 누에보레온주는 리오브라보(미국명 리오그란데)강을 끼고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누에보레온주 수출의 80%가 미국을 상대로 할 만큼 대미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

산업단지와 생산공장이 밀집해, 약 2천600개 업체에서 60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기아차와 LG 일렉트로닉을 비롯한 270여개의 한국 기업도 들어서 있다.

2007년 1인당 소득 수준이 한국과 비슷할 만큼 멕시코 내에서 탄탄한 경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는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 이전) 효과를 노린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투자하고 있다.

이 지역의 문제는 물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도인 몬테레이를 비롯한 누에보레온 곳곳에서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상당 기간 단수 조치가 시행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엘쿠치요 수로 2차 연장 사업과 라리베르타드 댐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 하지만, 완공까지는 4~5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정부는 이 때문에 테슬라의 누에보레온 진출에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도 이 점을 언급하며 "테슬라가 물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일

멕시코의 2022년 최종 GDP 성장률은 3.1%

멕시코 국가 통계청 (INEGI)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는 2022년에 3.1% 성장한 것으로 최종 수정된 자료에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GDP 성장률은 지난 1월 말에 보고된 3%의 잠정 수치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2월 Lopez Obrador 대통령이 예측한 5% 성장보다는 낮지만 경제부 장관인 Tatiana Clouthier의 2.6%, 멕시코 중앙은행인 Banxico 2.2% 등,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측은 2022년 2.8% 였는데 비교적 가장 근접한 결과치가 나온 셈이다.

3% 성장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멕시코 중앙은행이 긴축 통화 정책을 유지한 것이 유효했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는, 제조 부문이 3.3%의 연

간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서비스 부문은 2.8%, 농업, 어업 및 임업 등 1차 산업 부문은 2.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성장율에 경제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놀랍다"는 의견인데 'The Economist'는 멕시코 경제를 두고 예상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거둔 세계 주요 34개국 중 6위로 선정하기도 했다.

Banco Base의 경제 분석사인 Gabriela Siller는 "수출 수익이 작년 멕시코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성장율을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멕시코 재정부부는 3% 성장을, 국제통화기금(IMF)은 GDP 1.7%, 세계은행은 더욱 비관적으로 2023년 멕시코의 성장률이 0.9%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련의 약속을 했다"며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산업용수 재처리와 재활용 등을 비롯해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 그는 또 테슬라 공장이 "상당한 투자와 많은 일자리를 의미한다"며 중장기적인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멕시코 야권, 선관위 축소 강력 반발... "여권, 대선사기 준비"

멕시코에서 선거관리위원회(INE)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려는 정부·여당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멕시코 32개 주 80여개 도시에서는 국민행동당(PAN) 및 제도혁명당(PRI)을 비롯한 야당과 보수 시민단체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선관위 개편안 반대 시위가 열렸다.

지난해 11월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대규모로 조직된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백~수만 명이 모여 선관위 기능과 예산을 줄이는 데 앞장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정부·여당(국가재건운동·MORENA)을 성토했다.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반정부 시위대가 대통령궁과 의회 앞 소칼로 광장에 집결했다. 흰색과 분홍색 옷을 주로 차려입은 이들은 멕시코 국기를 흔들며 "내 투표권에 손대지 말라"라거나 "독재 포퓰리즘을 거부한



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는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주도한 마르코 안토니오 코르테스 멘도사(Marko Cortés Mendoza) 국민행동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해 대통령의 선관위 개편 법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코르테스 멘도사 대표는 "이대로라면 재외국민 투표 절차를 선관위에서 맡지 못하게 된다"며 "오늘 우리는 대통령궁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음을 분명히 목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칼로 광장 연단에 선 보수우파 계열 유력 인사들은 내년 6월 대선에서 '선거사기'를 준비하는 정부·여당의 술수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멕시코 유명 언론인이자 제도혁명당 소속 전 하원의원인 베아트리스 파헤스는 "우리가 침묵하면, 독재로 가는 길을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된 선거 개혁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선관위 기능 축소는) 공공연한 사기의 연대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이미 대선 패배의 냄새를 맡고 사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그들은 "2024년 시민

의 선택을 왜곡하기 위해 심판들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한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펠리페 칼데론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주주의를 확정한 위대한 하루이자 베아트리스의 훌륭한 연설"이라는 등의 글과 함께 시민들로 가득 찬 소칼로 광장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소셜미디어에는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마드리드 등지에 사는 멕시코 국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사진도 공유됐다. 선관위 인력 조직과 예산, 권한을 대폭 줄이는 취지의 법령 개정안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옹호 속에 최근 상·하원을 통과했다.

'선관위의 방만한 운영과 불신'을 주장하며 선관위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애초 개헌을 통해 선관위 기능을 제한하려 했지만, 야권의 반대로 이는 무산됐다.

이후 범 여권은 이른바 '플랜 B'라고 불리는 차선책으로 이번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다.

네덜란드 기업, 두랑고에 15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비료 공장 짓는다

네덜란드 기업이 멕시코의 해외 수입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비료 공장을 두랑고(Durango)에 건설하기 위해 15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Esteban Villegas Villareal 두랑고 주지사와 Adán Augusto López 연방 내무 장관은 이달 초 비료 생산 업체 Tarafert 사의 투자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약 100만 톤의 비료를 생산하게 되며 2026년에 가동될 예정이다.

Tarafert는 웹사이트를 통해 "암모니아와 요소 공장을 Lerdo 시에 짓게 되며 이 공장에서 멕시코 수요의 50%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비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멕시코는 비료 제조 공장이 없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입 제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공장 건설은 대통령도 큰 관심을 두고 있는데 양질의 일자

리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비료 수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멕시코 정부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멕시코 연방 정부는 물론 지역 당국도 이번 비료 공장 건설에 최대한 협조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에서 "비료 공장이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용수를 공급 받고 있는 Nazas 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환경요건을 준수하면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공업 용수 부족 문제는 처리된 폐수를 우선 공급하여 해결하

겠다"는 입장을 시 정부가 나타냈다. Tarafert 사의 15억 달러 비료 공장 투자는 단일 금액으로는 이 지역 자치 구역에서는 새로운 기록으로 지역 최초의 산업단지 조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장 입지 선정과 관련, Gómez Palacio-Durango시 고속도로를 포함한 철도 선로와 고속도로와 El Encino-La Laguna 가스관의 근접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Comarca Lagunera 지역이 매력적인 투자처인 이유는 높은 생산성과 산업 공간의 가용성, 특화된 노동력 등이 꼽히고 있다.

새로운 멕시코 항공사 Aerus, 다음 달 취항 예정

새로운 멕시코 항공사가 다음 달 이전에 비행을 시작할 예정이며, 두 개의 기존 멕시코 항공사가 최근 재정 문제로 퇴출되면서 새로운 항공사가 다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몬테레이에 본사를 둔 지역 항공사인 새로운 항공사명은 'Aerus'로 웹사이트에서 2023년 1분기에 멕시코 북동부에서 국내 노선 첫 취항하게 되며 곧 이어 국제 노선도 운항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Aerus가 비행할 첫 번째 국내 노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신규 항공사의 첫 비행이 Monterrey와 Coahuila 및



Tamaulipas이며 국제노선은 텍사스 남부와 중부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항공사의 CEO인 Javier Herrera Garcia는 "Aerus가 처음에는 3개의 19인승 Cessna SkyCourier로 시작하게 되며

2025년까지 항공기 14대를 추가 도입을 하게되면 500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상업 항공 허가를 받은 Aerus는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3년간 98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항공사의 모회사인

Grupo Herrera는 Aerotransportes Rafilher라는 San Luis Potosí 기반 항공 택시 서비스도 보유하고 있다.

Aerus의 멕시코 항공 부문 진출은 Aeromar가 이달 초 폐업하고 더 큰 저가 항공사였던 Interjet이 역시 재정 문제로 인해 2020년 후반에 운항을 중단하면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Aerus는 현재 Twitter, Facebook 및 LinkedIn를 통해 항공부분 다양한 직책을 찾고 있는데 가장 최근 운항이 중단된 前 Aeromar 직원들에게는 우선권을 부여하여 채용할 계획으로알려졌다.

美 상원의원, 멕시코 철강 수입 급증에 대한 조치 촉구

미국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멕시코산 철강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나 라이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 서명한 14명의 미국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초당파 그룹은 멕시코산 철강 수입이 지나치게 급증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했다.

미국 정치인들은 만약, 멕시코 정부가 이 같은 요구 사항을 거부한다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3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서한에서는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언급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 섹션 232는 지금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계 무역 기구(WTO)는 작년 12월에 이 문제를 두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한다고 해석 했는데 바이든 행



정부는 이에 대해 "국가 안보의 문제"라며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섹션 232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멕시코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발동되었으며, 그 결과 여러 국가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WTO에 법적 조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북미 무역 협상에서 2019년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철회했고 멕시코는 WTO에 이의 제기를 철회했는데 협정의 일환으로 미국과 멕시코는 양국 간의 철강 및 알루미늄 무역 수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된 사항이다.

협정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수입

이 "일정 기간 동안 급증할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수입국은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거나 "덤핑" 가격으로 판매되는 알루미늄 및 철강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양국이 합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조항을 들어 미국 상원의원들은 멕시코의 철강 수입이 2019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치를 요청하는 서한을 작성한 미 상원의원들은 "미국이 232조항의 관세를 해제한 이후 멕시코의 철강 도관 수입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멕시코의 미국 철강 도관 시장 점유율도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만 200개가 넘는 철강관련 일자리를 잃고 철강 도관을 생산하는 12개 미국 공장 중 하나가 문을 닫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미 상원의원들에 따르면, 멕시코로부터의 철강 수입이 "pre-

section 232 2015-2017 기준선"에 비해 지난 3년 동안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제품 철강 및 봉형강 수입은 120% 증가했으며 철강 도관은 577%나 증가했다.

이 같은 미국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멕시코철강산업회의소(Canacero)는 미국이 수입하는 것보다 멕시코에 철강을 수출하는 양이 두 배며 미국에서 멕시코산 철강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 소비의 3.3%에 불과하지만 멕시코 국내에서 미국산 철강의 소비는 14.6%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가치 사슬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미국 산업계의 진정한 도전은 Rio Grande(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위치한 강) 남쪽(멕시코)이 아니라 태평양 반대편(중국이나 아시아권)에 있다."고 말해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상황 인식을 해 줄 것을 미국 의원들에게 당부하는 것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리튬 산지 남미국가들 "이제 우리도 배터리·전기차 만들자"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전 세계 매장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남미 국가들이 리튬을 바탕으로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까지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페르난다 아빌라 아르헨티나 광물부 차관은 아르헨티나와 칠레, 볼리비아, 브라질이 이 지역에서 채굴된 리튬을 배터리 원료로 가공하고 배터리·전기차 제조를 시작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미 국가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자원 부국들이 단순히 원자재를 공급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원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 고부가가치 활동으로 전환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소득을 높이려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남미 리튬 트라이앵글' 3개국(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은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60%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미는 리튬으로 전기차나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데는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지나 기술적 변화, 지정학적 긴장이 남미 국가들의 이 같은 시도를 도울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관측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에 대한 우려로 전통적인 무역 관계가 분열되면서 특히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주요 국가들이 각자 자국 내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를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에서 채굴·가공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이런 흐름은 더 힘을 받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은데도 IRA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도 남미산 리튬 확보에 나섰다. 중국 자동차업체 체리(치루이·奇瑞)는 남미로부터 리튬을 공급받는 것과 동시에 아르헨티나에 4억 달러(약 5천184억원)를 투자해 전기차·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또 아르헨티나의 리튬 생산지 중 한 곳인 후후이주는 중국 기업과 배터리 음극재를 생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헤라르도 모탈레스 주지사가 밝혔다.

"축구 덕분에"...아르헨, 45년만에 방글라데시에 대사관 재개관

아르헨티나가 자국 축구 대표팀에 대한 열광적인 응원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끈 방글라데시에 45년 만에 대사관을 재개관했다.

아르헨티나 매체 클라린과 라나시온, 텔람 통신 등에 따르면 산티아고 카피에로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은 이날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주방글라데시 대사관 개관식을 했다.

1978년 아르헨티나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방글라데시 주재 외교 대표부를 폐쇄한 지 45년 만이다.

아르헨티나는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 과정에서 독립한 방글라데시와 1972년 수교 후 몇 년 뒤 외교 대표단을 파견했지만,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5년도 안 돼 철수시킨 바 있다.

카피에로 장관은 "역사적인 재개관"이라며 "방글라데시 국민의 아르헨티나에 대한 많은 사랑이 있다. 개인적으로도 매우 흥분된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의 '아르헨티나 사랑'은 축구 대표팀에 대한 응원으로 대변된다. 아르헨티나 외교 당국 역시 축구를 대사관 재



개관의 '축매'로 표현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팬들의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에 대한 응원은 열성적이다 못해 광적이기까지 하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다카의 광장에 수천명이 모여 아르헨티나에 성원을 보냈다.

앞서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방글라데시에서의 '기현상'에 대해 "디에고 마라도나와 리오넬 메시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기도 하지만,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당시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경기가 시작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경험했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편'을 들었는데, 이후로 팬들의 숫

문신으로 알아봤다...상어 뱃속서 실종된 아르헨 남성 유해 발견

아르헨티나에서 실종됐던 한 남성의 신체 일부가 상어 배속에서 발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영국 스카이뉴스가 보도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세 아이의 아버지인 디에고 바리아(32)는 지난 18일 아르헨티나 남부의 추붓주(州)에서 사륜 오토바이(ATV)를 몰고 해안가를 달리는 모습이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다.

이틀 뒤인 20일 바리아가 몰던 ATV는 부서진 채 로카스 콜로라도스 해변에서 발견됐지만, 그의 종적은 찾을 수 없었다.

다시 옛새가 지난 26일 아침 ATV가 발견된 장소 근처에서 상어 3마리를 잡았다는 신고가

해안경비대에 접수됐다. 어부들은 "상어 1마리의 뱃속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본 바리아의 가족이 유해에 새겨진 그의 문신을 알아봤다고 한다.

이 상어는 길이가 1.5m 크기였으며, 바리아가 실종된 주말 그가 ATV를 몰던 해안으로 큰 조수가 밀려왔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바리아가 사고를 당한 뒤 바닷속으로 끌려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에 연루된 다른 차량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유전자정보 검사를 통해 바리아 유해의 신원정보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계획이다.

자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때 마라도나가 감독을 맡은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의 조별리그 경기 때 정전 사태가 벌어지자, 화가 난 방글라데시 축구 팬들이 거리에 주차된 차들을 때려 부수

고, 배전 시설로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실제 이날 개관식에도 2022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의 경기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계속 나오기도 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

숯불구이 전문점

LA CASA COREANA

(구)한려수도가 '숯불구이 전문점' 으로 변신합니다



넉넉한 실내 공간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손님 접대에 안성마춤,
각종 모임 환영! 귀한 손님을 위한 귀한 장소로 명성을 이어 갑니다!

각종 모임 예약받습니다!

- ▶ 단체 40석 ▶ 단체 20석 ▶ 오붓한 가족모임 6석
- ▶ 귀한 손님을 위한 VIP 12석

예약 문의 Tel. 5514-8683 / Cel. 55-1801-2313

Av.Chapultepec No.425 Col. Juarez (하림각 맞은편)

www.lacasacoreana.com

www.restaurantecoreano.com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가짜뉴스’는 범죄입니다

양의 가면을 뒤집어써도 늑대는 늑대일 뿐입니다.
뉴스의 형식을 빌려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